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장로 수양회를 위하여)

1.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
2. 현실적 인간
3. 사람의 구조
4. 죄와 변질
5. 하나님의 형상
6. 회복된 사람
7. 교회와 교인
8. 지도자의 자리
9. 원칙과 포용
10. 행정의 제일 원리

1.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

이 세상에 있는 사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친히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창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셨다.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기록하게 하셨다. 물론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다. 이 말은 기자가 기록한 말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친히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영감으로 그 말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둘째 날은 그 기록이 없고, 또 그 옛새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날이 있다. 그 날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인데,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다.

창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라.

왜 하나님은 좋지 못하다고 하셨을까? 몇 가지 뜻이 있으나, 오늘의 강론과 관련한 것만 생각하기로 한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물론 외모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내적 형상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내적 형상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때에 당신의 선한 형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출33:18-20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자주 오해한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한 것이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셨다. 뻥뻥한 구름으로 가리거나, 흑암으로 가렸다.

출19: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뻥뻥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출19:16 제 삼 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뽁뽁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삼하22:12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뽁뽁한 구름으로 둘러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시18:11,12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뽁뽁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뽁뽁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자신을 가린 것은 사람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이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다.

출34:5-7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라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 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으로 선포하셨다.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사랑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부조와 선지자 33쪽).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입으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랑의 성질을 이해하면 당장 답이 나온다. 사랑은 단독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은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신 것이다. 사람이 독처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라고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1:31)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

에 절대 단일적 존재일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다. 사랑은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나며 사랑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이다. 이 삼위 사이에는 무한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것이다. 그 사랑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여 온 우주를 사랑으로 채우시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가 되도록 창조하셨고, 그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천지와 만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된 사람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에 결혼시키셨다.

창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은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다. 하나님은 친히 주례하셨다. 하나님의 주례사는 지금도 결혼 주례하는 목사들이 잘 사용하는 말씀이다.

창1:28,29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2:24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
을 주시며 주례사를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되었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
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육할 때마나 세상에는 사랑이 하나씩 늘어나게
하셨다. 사랑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
이다. 온 우주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통일되게 창조하신
것이다(엡1:10).

이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
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뿐이다. 다른 생물들도 나
름대로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임 표현으
로 하면 본능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생명도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그 입으로 사
람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의 행동
으로 생명을 주신 것을 나타내셨다. 다른 동물들은 사람처럼
흙으로 만드셨으나 친히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하시지
않았다. 다만 말씀으로 생명을 나누어주신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사랑의 줄로 이끄신 것
이다(렘31:3).

이리하여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거처였기 때문에(겔 28:13)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당연히 그 집에 살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늘에서 반역하고 땅으로 쫓긴 사단이 뱀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 사랑 안에서 떠나게 한 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갖 관심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시16:3).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사람에게 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은 이 형상을 숭선하여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덩어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책임이 목사와 장로들과 모든 직원들과 교인 개개인에 있는 것이다.

2. 현실적 인간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된 이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적 인간의 죄인이다.

롬3:10-18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 과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현실적 인간의 현주소이다. 그들에게 사랑이 어디 있는가? 없다.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자비 대신에 잔인(殘忍)이, 은혜 대신에 욕심이, 진실 대신에 거짓이, 노하기를 더디 하는 대신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교인만 된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 때에 섞인 무리들처럼 교회에서 이런 성질들을 내어부린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다면 그들이 나타내는 성질을 보아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닌지 스스로

집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처음에 남자를 만들어놓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는 “독처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즉 사랑으로 뭉쳐진 “우리”가 깨어진 것이다. 남은 것은 독처의 성질인 “이기심”이다. 이후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이기적인 안목과 이기적인 정신으로 보고 행한다. 오늘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이기심이다. 개인적 이기심 집단적 이기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인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불효와 사기 등등으로 나타나고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다. 이것은 현실적 인류의 주소이다. 로마서 1장에는 현실적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잘 계시해놓았다.

롬1:21-32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같은 사실은 갈라디아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갈5:19-21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성질들은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썩은 현상이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롬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엡4:18-22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무엇이 썩는가?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을 잃으면 썩는다.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은 만물이 생명을 잃었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한다. 우리 시조가 하나님이 친히 붙어넣어주신 그 생명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이 된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다 썩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를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이 세

상에 살아온 인류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들에게서는 썩는 일 외에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 성경은 이것은 죽은 행실이라고 말한다.

히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나,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죽었는데 무슨 행실이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1). 생각의 경향

창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중 아무도 이 정의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미국의 한 심리학 학자가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실렸다. 그 내용을 대강 적으면 이렇다. 21의 대학생들을 선택하여

10명은 죄수로, 11명은 간수로 정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범죄 행위를 한 일이 없고 다만 실험 대상으로 그렇게 정한 것뿐이었다. 그들에게 실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실험에 응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을 갔고 11명은 간수로 10명은 죄수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심리가 죄수와 간수처럼 되어갔다. 특히 간수 역을 맡은 사람들은 죄수들을 아주 무섭게 다루었고 죄수 역을 맡은 사람들은 진짜 죄수처럼 반항하고 폭동을 일으키려는 경지에까지 갔다. 겨우 5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실험을 하고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너무 단순한 단일 실험으로 그렇게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실험은 인간의 본성에 악과 잔인성이 있다는 말이다. 동양에 옛날부터 맹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들었으나 죄가 들어오면서 본질이 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된 것이다.

전7: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정직성을 유지하지 않았다. 꾀를 내었다. 하나님이 주신 정직성을 유지하지 하기보다는 그와 다른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존재들이 된 것을 가리키는 말

씀이다.

일상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혜를 주장하고 따르는 정신을 지적한다. 그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한 그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창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욥15:16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전9:3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렘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막7:21-23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딤후3: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롬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 언어의 경향

생각이 이러하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울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마12:34,35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시10:7 그 입에는 저주와 꾀술과 포학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시52:2 네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시52: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시52:4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64:3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시140:3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사32:6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약3:5,6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이 우리 언어의 실상이다. 온 세상이 저주와 욕설과 음담패설로 가득하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전혀 그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음색과 억양과 어조는 타고난 것이라 하더라도 단어는 고상하고 덕스러워야 할 것이다. 희롱의 말과 유머와 조크 등을 구별하여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회복된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행동 양식

창9:22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 아마도 가인 이후에 다른 사람의 수치를 까밝히는 첫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홍수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도 사람들의 본질이 아담 안에서 죽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인간의 성질은 다른 사자들의 허물과 수치를 폭로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그런 성질이다.

잠1:16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잠6:12-19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궤환한 입을 벌리며 13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14 그 마음에 쾌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16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59:1-9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5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7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8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롬3: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엡2:2,3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었더니.

사람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다. 때때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악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을 시인하였고, 또 예배도 했다. 그래도 그 예배행사 자체를 악하다고 성경은 말한다.

요일:12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찜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약4:13-17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으로 어디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도 악한 것이라고 한다. 현세를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이 안목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아주 선한 것 같이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에 악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방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한 것이 자기중심이고 사람 중심일 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된다.

3. 사람의 구조

성경은 사람 창조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창조 당시인 창세기 1장 2장의 기록과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된 사실을 종합하면 사람의 구조를 조명할 수 있다.

1). 신체의 구조

창2:7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말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은 흙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다. “아파르 민 하아다마 (אפר מן האדמה)”인데 “아파르(אפר)”는 티끌, “하아다마(האדמה)”는 흙이다. “민(מ)”은 “...에서”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의 티끌로 만드셨다고 번역하면 원문을 다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이 될 원소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설명한다. 일리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이 흙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계시한다(출20:11). 이 땅의 티끌로 사람의 신체를 만드신 것이다.

어떤 철학자가 우리 신체의 재료들을 분석하여 금전적 가치를 매겨놓은 것이 있다. 보잘 것 없는 가치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방과
중간크기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

찰잔 7잔을 채울만한 당분과
닭장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와,
성냥 2200개비를 만들 만한 인과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장난감 크레인하나를 폭파할 수 있는 칼륨,
그리고 개 한 마리에 숨어있는 벼룩을
몽땅 잡을 수 있는 유황 이것이 전부다.”

사람의 신체는 이 정도의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빚어 만드신 대단히 가치 있는 구조이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창1:26의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외모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이 옛세 동안 창조한 물질은 선한 것이다.
딤편4: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

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였다. 이 말은 “토브”인데 good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좋다 선하다”는 두 가지 뜻으로 다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말은 좋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이 나타내는 분위기가 다르다. 좋다는 것은 감각적 정서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선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표현이다. 구약성경(舊譯聖經)은 모두 “선한지라”라고 번역하였다. 딤편4:4의 말씀에 의지하면 선하다는 번역이 더 합당한 것 같다. 하나님은 물질을 선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 선한 물질인 흙의 티끌로 사람의 신체를 조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물질인 우리 신체도 선한 것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랬다.

여하튼 우리의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물리적 화학적 제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신체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것들은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의 활동을 할 것이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그 몸의 조직과 기관들은 완전하였고, 외모는 아름다웠다.”(그리스도인의 절제와 성경상 위생 7).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완전하다는 말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다는 말이다. “인간의 신체적인 기관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패종시계처럼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 혼자 가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다. 물론 심장이 뛰고 맥박이 이어져 나가며 계속 호흡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한 번의 심장의 고동이나 한 번의 호흡까지라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영감은 자존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감이다.”(1기별 294쪽)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을 때에 형상을 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모양은 외모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생김새도 하나님의 모양과 같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도 “인자 같은 이”(단8:13)로 계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는 바로 이 인자 같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은 것이다.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사람은 내적 외적 형상과 모양이 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로 지어졌다는 것이 다르다.

2). 물리적 화학적 구조

하나님이 사람을 물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의 과학적 구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들이 원활하게 작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된다. 외부라고 하는 것은 천연계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음식으로 공급받는 것 등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또한 사상적 영적 사실도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셨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어도 유예된 생명의 기간 동안에 사람은 햇빛과 공기와 물의 공급 없이는 유예된 생명도 존속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천연계의 자원을 풍부하게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호흡을 하는 동안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법칙을 주셨다. 이 법칙을 잘 따를 때에 신체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가 원활하게 작용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찬탄하면서 이런 시를 썼다. 시139:13,14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찍 건강의 법칙을 주셨다. 이 법칙을 잘 순종하면 애굽인의 질병의 하나도 이스라엘에

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

출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말씀한 여호와의 말과 계명과 규례에는 건강에 대한 것이 포함되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순종하면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신체와 신체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체 관리에 대하여 주신 규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을 관리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셨는데,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다. 거기 기록된 사실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건강을 얼마나 유의하여 지도하시는지는 신명기 23:10-13을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13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

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 중에 특별히 음식물에 대한 것은 건강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음식물은 처음에 순수 채식을 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음식물(飮食物)을 따로 창조해 주셨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딤후4:3)라고 성경은 계시한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음식물을 창조하신 것이다.(창 1:29). 그러나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다(창9:3). 성경에 계시하신 이 사실을 미루어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음식은 두 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창조해 주신 음식물이고 다른 하나는 허락하신 음식물이다. 육식은 환경을 따라 허락하신 음식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음식물로 창조해 주신 것은 영원히 음식물이다. 그러나 환경과 처지를 따라 허락한 음식은 허락을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때 더 이상 음식물로 합당하지 않다고 허락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허락한 음식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음식으로서의 유익이 없어질 것을 보시고 이제는 창조해 주신 음식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면 영육 간에 복을 누릴

것이다. 이율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음식을 거들 수밖에 없게 된 시대에 건강을 위하여 여덟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신 것이다. 그 여덟 가지 원리의 첫 글자를 한데 모아 뉴스타트라는 말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은 합당한 영양(Nutrition), 운동(Exercise), 좋은 물(Water), 햇빛(Sunlight), 절제(Temperance), 맑은 공기(Air), 합당한 휴식(Rest), 하나님을 신뢰함(Trust in God)이다. 이 원칙들은 “치료봉사” 책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원리를 영감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엘렌 화잇은 여덟 가지 원리의 첫 글자를 모아서 A Steward(청지기)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A는 abstinence(절제), S는 sunlight(햇빛), T는 Trust in God(하나님을 신뢰함), E는 exercise(운동), W는 water(물), A는 air(공기), R은 rest(휴식), D는 diet(음식)이다. 뉴스타트와 꼭 같은 말인데, 영어 단어를 조금 다르게 골라 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별을 무시함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지혜이다. 가르쳐주신 대로 뉴스타트 곧 생활 전반에 새 출발을 해보는 것은 정말로 할만한 합당한 일이다.

각설하고 우리의 몸은 이와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요소들과 내부에 창조해두신 요소들이 잘 화합하여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요즘은 인간 유전자 해독으로 유전자들이 모두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이 새겨진 것들이다. 그래서 언젠가 미국의 타임지는 사람을 그려놓고 염기서열을 나타내는 글자로 짝 채운 표지를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이것을 이미 말해놓았다.

고후3: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렘31: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히10:16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햇빛은 어떤가?

우리가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생존할 수 없다. 아무리 신체 구조가 완벽하다해도 빛을 계속 받지 못하면 신체의 기관들은 활동할 수 없다.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다. 이것들은 다 우리 몸 밖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몸으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하도록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이렇게 운영되도록 염기서열을 통하여 새겨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몸이 원할 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에 순응해야 한다. 그렇게 순응하지 않으면 결국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병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견디다 견디다 몸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병이 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을 잘 따라서 건강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 몸에 작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밖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도록 일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을 때 신체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대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범죄 하자마자 사람의 몸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들이 변질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죽지 않아도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몸에 화학적 생물적 구조가 변질 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로 변질된 체질이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한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 당시의 상태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지만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완전한 변화는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4. 죄와 변질

앞 장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상태의 체질이 변질되어 약해지고 썩어짐의 종 노릇하게 되었다. 이제 변질된 것들을 살펴보자. 이것은 현실적 인간 상태에서 이미 다른 것들을 다른 측면으로 잠깐 살펴보려는 것이다.

1). 생각의 변질

사람이 죄를 범하자마자 생각의 경향이 바뀌었다. 생각의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뇌수의 작용이 변질되었다는 말이다. 생각은 뇌수가 뇌의 계곡을 흐를 때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한다. 아무튼 죄를 범한 후에 제일 먼저 생각의 경향이 바뀐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고 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에 그때까지도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禁令)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

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었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였다. 결국 현명한 뱀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는 추론하였다. 하와는 불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과같이 아름답고 표면상으로 무죄한 것처럼 그의 앞에 있었다. 그 여자는 전보다 더 큰 사랑을 그에게 표시하였다. 그 여자에게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릅쓰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부조와 선지자 53 쪽).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담은 그의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직도 그가 죄를 범하기 직전이였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생각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부조 57쪽). 아담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에게 자기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 책임을 아내에게 씌웠다. “우리”가 깨어져서 “내가”된 상태이다. 생각이 변질된 것이다.

이것뿐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대입법자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범죄의 결과를 알리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셨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은신(隱身)하려고 하였다”(부조 57쪽).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무서워한다. 성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시조가 범죄했을 때 나타낸 사상 그대로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정서 중에 공포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철저하게 변질된 인간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하나님 만나기를 무서워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 쫓아내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인간의 이성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욥38:2). 인간이 무지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도 무지하고 불완전하다. 인간이 아무리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다(고전13:12). 인간의 지식은 그날에 폐하게 될 것이다(고전13:8).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게 되었다.

시14:1-6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롬1:20-25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변질되어 나타나는 형상들이다. 결국 그들의 생각에 중심에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이다.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이다. 이기심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것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그는 두려워하여 숨은 아담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없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에 기뻐해야 한다(시122:1).

우리는 참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며 성경의 사상이 바로 나의 사상이 되도록 굴복해야 한다(고후10:5).

2). 신체의 변질

이미 몇 번 언급한대로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신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변질되었다.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원래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불멸할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사람을 그 체질이 도로 흠이 되어 버렸다. 지금 사람들의 체질은 그냥 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호흡하는 동안 육체라는 이름을 호흡이 멎을 때까지 이어가는 것뿐이다. 체질이 완전히 변질된 것이다. 그래서 모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땅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흠을 뭉치듯 하셨다고 계시하고 있다.

창3: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흠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139: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욥10:9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시103:14-16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

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신체는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죽음의 성질들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것은 연약하고 피곤하고 병들고 등등의 증상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몸의 기관들과 세포에 변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짐작도 하기 어려운 것 같다. 아무튼 그때는 늙거나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지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체구도 현재보다 장대했을 것이 틀림없다. 바산 왕 옥은 모세시대 사람이라도 그의 철 침상의 크기에 미루어 그의 신체 상태를 생각하면 장대한 사람이었다. 그의 철 침상은 길이가 아홉 규빗, 폭이 네 규빗이다(신3:11). 보통 규빗으로 한 규빗은 45cm 정도이다. 9 규빗은 4미터 5센티가 된다. 폭이 네 규빗이니까 1미터 80센티이다. 얼마나 큰 거 인인가! 아마도 아담은 이보다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점 퇴화하여 왜소하여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엄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

화(退化)된 것을 알 수 있다.”(대쟁투 644쪽).

체구가 퇴화하였으니 신체의 모든 기관과 세포의 상태도 퇴화하였을 것은 명확한 일이다. 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음식물도 변하였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음식물로 허락하셨다. 아마도 극한 상황을 맞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자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더욱 약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도다”(시106:14,15).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모든 푸른 것이 죽어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는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부조 107쪽). 환경의 변화 음식물의 변화 죄의 영향 등등으로 사람의 신체는 아주 약하여져갔다. 그 결과로 사람의 수명은 점점 단축되어서 모세 자신은 120세를 살았으면서도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90:10)라고 기록하였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다.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홍수 전이나 홍수 직후의 수명을 어떻게 회복하겠는가?

듣는 대로는 우리의 뇌 기능도 전체의 5-10%정도만 작용한다고 하며, 유전인자들이 많이 변질되어 그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음식물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도록 요청하신 것이다. 이렇게 변질된 체질이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인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낼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뉴스타트 원리를 따라 생활을 실천하면 변질된 체질을 그런 중에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면할 수 없겠지만, 호흡이 멈출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의사가 아니고 생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며, 생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실들을 설명할 수 없다. 아마 그럴 수 있었다면 인체 생리 현상을 들어 더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만큼 이야기를 줄여야 하겠다.

3). 성질의 변질

모기 신학이라는 농담이 있다.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들어서 사람을 물게 하여 사람을 괴롭히는가? 라는 말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모기가 사람의 피를 먹도록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죄가 세상을 뒤덮으면서 모든 피조물이 변질된 것이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변질하자 따라서 변질한 것들이 나타내는 성질들이다.

생각이 변질되고 체질이 변질 되었으니 성질이 변질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람의 성질은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爲人)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한다(잠23:7). 그러나 성질은 오히려 정서감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사전은 성질을 타고난 기질이라고 정의한다. 기질은 또 심리학에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의 특징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성질은 이성(理性)쪽이 아니라 정서(情緒)쪽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결국 죄를 범한 후의 사람은 정서감이 변질된 것이다. 그래서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자비 대신에 잔인이, 관용 대신에 편협이, 동정 대신에 냉정이, 인내 대신에 조급함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었던 온갖 좋은 정서가 이기적인 상태로 변질 되면서 악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엡4:19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사망이 되었으니 어떻게 감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고, 결과로 욕심을 따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된 것이다. 인자를 베푸는 것이 오히려 잔인한 성질로 나타나곤 한다. 잠12:10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공홀은 잔인이니라.

렘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어서 나타나는 성질이 모두 거짓 마음에서 나온다. 시속말로 사람들이 구경하기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싸움과 불난 구경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싸우려는 본성이 있다는 소리이다. 사실 세상에서 오락(entertainments)을 위하여 만든 것들은 거의 다 싸우는 것들이다. 영화나 컴퓨터 게임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운동 시합은 무엇인가? 역시 싸움이다. 경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는 광경을 보면서 열광한다. 만들어지는 영화나 TV 프로그램들도 역시 그렇다. 이런 성질은 말세에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다.

딤후3:1-5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성질들이 들어있다. 이것은 말세에 와서 나타난 성질들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누적되어온 성질들이 특별히 말세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고약한 성질이 한꺼번에 절정으로 나타난 때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쩌면 사람들의 변질된 성질의 대표적인 것이 성내는 것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역행하면 성부터 난다. 성이 나면 말이 부드럽지 않고, 표정이 사납게 변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내기를 자제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잠14:17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14: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15: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16: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약1:19,20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20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것은 사나운 것과 통하는 성질이다.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성내는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면서 성내어 다투고 고함치며 성경이 계시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직원회에서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교회 일 하면서 서로 다툰 때는 끝이 없다. 이유는 분명하다 상방이 다 믿음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어떻게 싸움이 그치겠는가? 그렇게 자기 믿음대로 강하게 주장하는 그 쌍방의 주장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역사적으로도 종교전쟁이 가장 잔인하고 절대적이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싸우다 죽는 것은 순교라고 치켜세운다. 사후에 영생이 보장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쌍방의 하나님은 다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 된다. 결과는 그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만 괴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원하실까? 요즘 세상에 횡행하는 테러가 바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런 정신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은 변질된 인간의 성질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질된 것이 다시 변화해야 한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야 한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2:22-25).

4). 생활의 변질

생각이 변질되고 성질이 변질되었으니 생활이 변질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1). 식생활 변질

음식물에 대하여서는 이미 말한 사항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에게 육식할 것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육식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부조와 선지자 91쪽).

홍수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도록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

어 간 사유 중에 육식도 한 몫을 단단히 한 것이 확실하다. 육식을 하게 된 동기는 어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동물로 제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는지 모른다. 짐승의 고기를 불태우는 냄새가 그들을 후각과 미각을 자극했을 수도 있다. 성경은 함의 손자이며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했다. “특이한”이라는 말은 “기보르(גִּבּוֹר)”인데, “힘센. 우두머리, 용사” 등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앞에”라는 말은 “대항하는”이라는 뜻이 있는 “파님(פִּנּוּן)”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힘센 사냥꾼”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더구나 “기보르”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사용된 말이다. 이사야 9:6에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아들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한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기보르”이다. 니므롯은 자신을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 곧 “기보르 짜이드”로 행세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능한 사냥꾼이라는 참람한 칭호를 가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희생의 동물로 제사를 받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못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암시적 의미가 들어 있는 이름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그는 짐승을 잡는 일 곧 사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뜻이 된다. 니므롯은 정말 이방인들에 의하여 신으로 추앙되었다는 것을 전설을 전해주고 있다.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예언적 제도인데 사단은 그것을 사람들이 육식을 하도록 충동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육식은 원래 사람들의 식물로 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식생활은 아주 변질된 것이다. 변질된 식생활은 질병을 유발하는 제일 도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호홉하며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지 않으면 안되는 그 필수적인 것이 또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 방편이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 인간관계의 변질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죄를 범하자마자 “우리”로서의 서로 사랑하는 일 대신에 “내”가 살아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랑의 사람일 때는 생육할 때마다 사랑이 태어나서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기심이 가득하게 되고 죄가 충만하게 된 것이다. 아이가 하나씩 태어나는 것을 죄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니 인간관계라는 것이 죄인과 죄인의 관계기 되었다. 죄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람을 경계하면서 대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인간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利害關係)이다.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자기에겐 유익하고 덕이 될 것 같으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약4: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범죄의 핵심부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 드는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욕심, 이기심은 다툼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개인관계나 국가관계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희생하면서라도 관계를 맺으려 한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희생이라는 말이 없었을까 모른다. 인간관계 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후 사랑의 관계에는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왜냐하면 범죄한 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도록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는 변질된 관계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은 인간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변질이 되었어도 가장 변질이 덜 된 것이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 관계마저 이해관계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

하고 부모를 치며 나아가서는 부모를 죽인다. 가끔 신문지면을 덮는 기사 중에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 자식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인간의 변질이 동물보다 훨씬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덕과 윤리가 깨어지고, 타락한 동물적 욕망만이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벧후2:12-14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훼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씀들은 인간의 변질이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 이런 변질된 성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이기심 곧 자기 욕망 중심으로 맺으려고 한다. 결과는 싸움과 음행과 도둑질과 사기와 살인 등등이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세상이다.

6).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질

인간관계의 변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변질의 결과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방법 안에서 생활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조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분명하다.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께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시므로 죽음을 유예하시고 그 동안에 다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존재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시간이란 바로 이 주신 기회가 계속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회복이 완성되는 때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끝나고 영원이 있을 뿐이다.

시간은 모든 변질된 것들의 변질된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다. 변질되고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맺어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드렸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시간이라는 선물이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인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깨어진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변질되자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1) 우상을 숭배하게 됨

구약성경에 나타난 가장 강한 하나님의 책망이 사람들의

우상숭배이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에 대한 외경심과 신앙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사람은 스스로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체득한 느낌일 것이다. 갓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이 없다면 어떻게 생존했겠는가? 이런 성장과정은 사람이 외부로부터 오는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숭배심이며 곧 신앙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부족이든지 이 신앙공동체가 없는 인종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찾는 대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존재가 되어 인격적인 존재가 비인격적인 사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웃지 못 할 사태를 만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있는 의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연약함이 인간 보다 못한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미련함에 빠진 것이다.

고대 사회의 역사를 보면 온통 우상 투성이인 것을 본다. 이집트가 그렇고 헬라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예외가 없다.

롬1:20-23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출20:4-6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행17:22,23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 무신론자가 됨

이성적이며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생명도 없고 비인격적인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볼 때에 그 모순을 느끼게 된 똑똑한 사람들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진다. 곧 무신론을 주장하는 일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소위 지식인들은 무신론자가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10:4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14: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가 기준이 된다. 결국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자식들과 같은 것이다. 자기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쓰고 있는 만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아무런 대답을 찾을 길이 없다. 결국 무신론자는 진화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3) 불가지론자가 됨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사실은 같은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매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결국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고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사상이 아니겠는가? 결국 신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 스스로 주어진 생명으로 주어진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인본주의 정신이다.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사45:9,10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10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고전4: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결코 하나도 없다. 우선 신체와 생명도 스스로 조성한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자녀가 된 자가 부모에게 네가 무엇을 낳느냐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증한 정신인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바로 이런 가증한 정신의 소유자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관계

의 변질이 낳은 비극들이다.

(4) 진화론 신봉자가 됨

이미 말했지만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은 중국적으로 진화론을 신앙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만물이 있는데, 살며 숨쉬고 행동하는 자기가 있는데, 그 근원을 알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 근원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다른데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진화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화론은 결코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결코 증명될 수도 없다. 얼마 전에 토성에 인공위성을 날려서 7년 3개월 만에 토성에 이르렀다. 참으로 대단한 기술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과학자들의 말을 보도하기를 토성의 달 타이탄의 상태가 45억 년 전 지구의 상태와 흡사하기 때문에 생명 발생 기원을 찾는 일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45억 년 전 지구의 상태를 누가 보았기에 토성 위성 타이탄의 상태를 45억 년 전 지구의 상태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적으로 추측일 뿐이다. 그런데 그 추측을 기정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진화론이란 이렇게 추측과 상상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것마저 주장하지 않으면 인류가 영

원한 고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한사코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큰 비극의 하나는 결과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의 원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나인 것을 아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주었기 때문이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며 자란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모른다. 것처럼 아주 일찍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를 잃어버린 인류가 자기의 신원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 신분을 찾은 것이 진화론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저급하게 한다. 짐승의 후예가 고상할 수 없다. 인권을 부르짖지만 진화론은 인간을 짐승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이 주장하는 사회에는 인권 경시 풍조가 풍미(風靡)하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이 인류에게 공헌한 것이 있다면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한 일일 것이다. 아니 사람을 짐승의 후예로 격하시킨 것일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스스로 짐승의 후예로 자기의 모습을 저급하게 만들었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된 상태의 극단이 진화론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짐승의 후예로 자처하게 되었으니 그 변질된 상태가 얼마나 엄청난가!

5.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지어졌으나 이제는 죽음이 되었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롬8:21).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대신 사망의 형상이 인박히게 되었고, 삶을 통하여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器官)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에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소망 36쪽).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래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구주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계시된 것이다.

1). 마지막 아담

태초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들이 땅

에 충만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아담이 땅에 충만하게 될 모든 생명을 자기 안에 가진 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죽게 되자 그 안에서 그에게서 태어날 모든 후손이 함께 죽게 되었다.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다른 아담을 탄생하여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도록 하셨다.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담이 산 영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원래 살려주는 영이셨다. 예수께서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산 영이 된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에 오셨는데, 아담을 산 영이 되게 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산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고전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롬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되고 마귀의 인이 찍힌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형상이 땅에 충만하게 된 그것을 다시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뜻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첫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되었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의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며, 범죄 하기 전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된 것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그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 같은 것이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바로 그런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다. 첫 사람이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신 것이다.

요14:7-9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

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도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후4: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2). 마지막 아담의 탄생

첫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격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는 말은 마지막 아담의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생명은 당신 자신의 고유한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자존하신 하나님이신 자신의 자존한 생명이라는 말이다. 그 생명이 하나의 생명의 씨가 되어 여자의 몸에 잉태되

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여 결혼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을 때, 땅에 충만하게 될 아담의 모든 후손이 창조된 것이다. 세상에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담의 생명을 이어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남자나 여자나 예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첫 아담과 같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마지막 아담이 될 수 없다.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오지 않으면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첫 아담 안에서 지은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탄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계시한 것이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이사야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

셨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1:18-25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은 구속사적 의미가 깊은 말씀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마태와 누가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생략하고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사실부터 기록하

였고,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만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되어 탄생하는 것을 위하여 굳이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요한의 기록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를 통하여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계시하셨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모태에서 탄생하실 때에 중생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모태에서 나면서 중생할 수 없다. 우리는 어차피 아담으로부터 이어오는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날 때에 비로소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중생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당신 자신의 근본적인 생명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시므로 여자의 후손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그런 방법으로 탄생하신 것이다.

3). 마지막 아담의 성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성질은 어떤가? 그의 품성의 상태는 어떤가? 그는 타락한 인성을 소유하셨는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체질을 가지셨는가?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품성의 성질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의 인성 문제에 대하여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원칙에 의하여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1) 성품

성품(性品)이라는 말과 품성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또 품성이라는 말도 한자로 두 가지가 있다. 품성(品性)은 사람의 됾됨이를 뜻하는 말인데 특히 도덕적 가치에 의하여 본 성격을 뜻한다. 흔히 인품(人品)이라고 표현한다. 영어로 Character 이다. 품성(稟性)은 날 때부터 타고난 성질을 뜻하는 말이다. 영어로는 Nature 이다. 그런데 性品은 사람의 성질과 사람의 됾됨이를 뜻하는 말이다. 영어로는 personality 라고 번역하고 있다. 결국 性品은 品성과 稟성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님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는 곧 그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품성의 두 말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경은 예수님의 品性에 대하여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다. 그는 사랑이시며, 자비와 동정과 관용과 용서와 은혜의

品性이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죄가 없으시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심

요8: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죄로 책잡힐 일이 없으셨다. 그를 책잡기 위하여 탐탐히 노리는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그가 죄 없음을 증거하였다.

요7: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가 결코 죄가 없음을 증거하였다. 그것은 그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말이다.

벧전2:21-23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23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 불쌍히 여기심

이런 그의 品性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다. 그는 세상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기초이다.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는 곤경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동정하셨다.

마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마15: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눅7: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번역된 원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 “스플랑 크니조마이(σπλαγχνίζομαι)”를 썼다. 이 말은 “간절히 열망하다”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일을 열망하셨다는 뜻이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움의 손길을 늦추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일을 기뻐하셨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린 중풍병자나, 심

지어 십자가에 달린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한 강도의 호소까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며 격려하시고 약속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며, 형벌하기를 좋아하며, 독재하고, 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강요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놓았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퍼뜨린 이런 거짓을 말끔이 씻어내셔야 하였다. 주님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것이었다.

요14:10,11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다) 사랑하심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일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계속 주셨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 세 번씩이나 선생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용서와 자비의 시선을 보내시고 회개의 길로 이끄셨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므로 더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드러내셨다(요15:13).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15:12).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 가운데 사시는 동안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신 순간은 결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4). 마지막 아담의 생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그의 생활 전체가 봉사의 삶이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고 하셨다.

마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눅22: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섬김은 차별이 없었다. 스스로 그의 섬김을 거절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섬김의 손을 펴셨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외로운 자들이 위로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용서를 받았는가!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놓여나와 사망의 이별로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위로가 되었으며, 저주의 질병으로 가족과 헤어져 격리된 고독에 몸부림치던 자들을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평화와 안식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셨다.

약한 사람은 힘으로 사람을 섬길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은

재물로 사람을 섬길 수 없으며, 무식한 사람은 지식으로 사람을 섬길 수 없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어린아이들은 어른 섬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섬기는 사람은 섬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홀로 이 섬길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섬김 받기를 원하는 약한 사람들이다. 섬길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섬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동일하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민12:3)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기에 넉넉한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뜻이다. 광야에서 그 반역에 익숙하고 불평에 이끌린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내와 온유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섬길 수 있으시기 때문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는 없었다. 주님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다. 주님의 이런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밖에 없었다. 그들은 다만 유예 받은 시간 동안 호흡

하고 있을 뿐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생명이시고 건강하신 주님이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섬김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주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의 새롭게 함을 입었으면 섬겨야 한다.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섬기라.

마지막 아담으로서 주님은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그 안에서 우리도 회복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다.

5). 종말인

마지막 아담은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다. 예수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다. 이 지구 역사에 살고 간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살게 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첫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들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고 명하심으로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다 아담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것이 시간을 따라 자기가 태어나게 될 그 시간에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담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할 모든 생명의 씨를 자기 안에 가진 채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생육하고 번성할 생명의 씨가 아담과 함께 다 죽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 안에서 생육하게 한 씨와 상관없는 한 생명의 씨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허락된 기간 동안 호흡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은 마치 사형수가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첫 아담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사망의 중보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기로 한 것이다. 그는 아담의 죽은 생명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으로 여자의 태중에서 몸을 취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에 사망을 해결하여 첫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가 역사의 종말에 오셔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을 자기 안에 거두셨다. 우리가 첫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의 증보자가 되었다. 그래서 첫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인류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생명으로 옹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첫 아담 안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아직도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현재 인간의 실상이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마8:22)고 하셨을 때, 죽은 자를 장사할 죽은 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은 것과 산 것과 우리가 보는 죽은 것과 산 것에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첫 아담으로부터 받은 호흡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 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아직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산 자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이 마지막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살아남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는 종말 인이다.

히1:1,2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즉 말세이다. 위의 성경 구절이 말하는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이 끝난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린도 전 15:45에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지막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외에 지구 역사의 종말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인이시다. 우리가 그날에서기 위하여서는 철저히 종말인이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므로 이 죄의 세상은 종말을 맞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종말인이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흔히 예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재림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이미 해 두셨기 때문이다. 재림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

서 이미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순간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잠시라도 예수를 떠나면 준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종말인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종말인이 되며 종말인이 된 사람들을 재림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다.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이 되었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생명이 된다.

이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두 아담 안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어느 아담 안에 있는가?

6. 회복된 사람

우리는 앞 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지러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사실을 살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마귀는 사람들이 마귀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로 변질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셨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요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로 하여 마귀는 예수를 멸하려고 안간힘을 다 쏟은 것이다. 물론 마귀는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패배를 했다. 그런데 아직도 패배한 마귀에게 붙어서 그의 자녀노릇을 하는 세상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요일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없앴다. 아직은 그의 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십

자가에서 죽어 없어진 것이나 진배없다.

히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후4: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며 재창조라고 한다. 이제 성경이 계시하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

1). 중생과 중생의 방법

(1) 중생이란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처음 태어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서 이어오는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태어난 것은 다만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주어진 유예기간을 얻은 것뿐이다. 만일 이 기간 동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 없어지게 된다.

처음 태어난 것은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인데, 다시 태

어나는 것은 마지막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모든 사람들이 첫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앞 장에서 말하였다.

첫 아담에게서 태어난 첫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할 수 없다. 그는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집행이 유예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출생의 표현으로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지만,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두고 말할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냥 첫 아담 안에서 주어진 호흡을 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은 첫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중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15:47-49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

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 중생의 방법

가) 중생과 회개

거듭나는 것을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거듭나는 것을 출생으로 표현한다면 회개는 잉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듭나는 데는 회개가 필수적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마태복음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온다.

마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가 어떤가? 그것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주 완벽하리만큼 의롭게 산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당시 사회 소시민들이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존경했었다.

눅18:11,12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이러 기도의 내용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실상

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행동의 상태를 두고 볼 때에 그렇다는 말이다. 또한 심신이 아울러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드러난 삶의 모습이 그들 만한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가 비로소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무슨 뜻인가? 다른 한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18: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언뜻 생각하면 먼저 말씀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 어렵지 않게 뜻을 헤아릴 수 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되기 위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다.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되려면 진정한 돌이킴 곧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다.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말과 같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요3:4),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한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회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흔히 우리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도 아니다. 이런 정의를 생각하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된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헬라어로 회개를 뜻하는 말은 “메타노이아(μετάνοια)”이

다. 이 말은 두 낱말의 합성어인데, 메타와 노이아가 합한 것이다. 메타는 “후에”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이다. 곧 “후에 한 생각”이다. 먼저 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에 생각을 고쳤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행동의 문제보다는 생각의 문제가 앞서있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

잠23: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요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앞으로 올려서 쓸 것.

이 말씀은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것은 사망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생명의 생각으로 고쳐야 한다.

롬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땅의 생각이며 땅에서 난 사람들의 항상 악한 생각이다.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한다.

골3:2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회개가 생각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생각은 나타난 행동으로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 성경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생각이 어떠한 결국은 행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요일3:15).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생각을 따라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창6:5). 그 악한 생각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망의 존재들의 사망의 생각인 것이다. 이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의 첫째 요건이다.

이 생명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이며, 성령의 생각이다.

렘29: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요3: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

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롬8: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생각을 고치는 회개를 할 때에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굴복해야 한다.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이다.

고후10: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는 매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세월 동안 제대로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고 지나왔을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올바르게 바뀐 예수님에게 굴복한 새로운 생각을 따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마3:8,9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참된 회개가 아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그들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요8:39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바르게 고친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진정한 회개로 생각을 고치고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물로 난다는 것

예수께서 밤에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중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중생이라고.

요3:3-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그 뜻을 찾아보자.

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침례를 뜻한다.

벧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물은 침례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것이다.

또 다른 말씀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시되었다.

엡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씻기는 물로 씻는데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된다. 그러므로 물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임을 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요15: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므로 물은 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 줄 알게 되었다. 물로 거듭난다고 할 때에 거듭남에는 침례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롬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물로 나는 것이 말씀과 침례인 것을 성경이 가르쳤는데,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다.

요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전2:12,13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

으로 분별하느니라.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물로 표상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도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므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일치시켜서 말씀하셨다.

요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거듭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다. 육신으로 난 것을 거듭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을 영”(요3:6)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선 사실을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종합적으로 맺어놓았다.

벧전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성령께서 말씀 안에 역사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 발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물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사실을 우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요1:12,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요일3: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 때문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없었다.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표현한 말인 것이다.

벧전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확

실히 가르쳐주고 있다. 물이 침례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런데 그 침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하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로 가는 생명이라고 가르친다.

벧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2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천사와 권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거듭난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2). 침례

침례는 거듭나는 요건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왜 침례가 거듭나는 요건 중에 들어갔을까? 침례에는 어떤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일까?

침례는 예수 신앙의 입문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개인의 구

주로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 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래서 침례가 입교 예식인 것이다.

교회가 행하는 두 가지 예식은 침례식과 성만찬 예식이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족(洗足)예식은 성만찬 예식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고 하는 말이다. 이 예식들은 모두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들이다. 그중에 침례는 거듭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의 뜻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막1:4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눅3:2,3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행19:4]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둘째,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한다.

롬6:3-5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

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셋째,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마3:13-15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죄 사함을 받게 되니 자연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 쉽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지만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안된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함을 받아야 할 죄가 없기 때문이다.

(1) 예수님의 침례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행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침례로 이루어야 할 의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행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죄를 처리하시고 다음으로

의를 이루셔야 한다. 즉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를 처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

단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허락된 칠십 이레 동안에 메시아가 이를 여섯 가지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첫 셋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뒤의 셋은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뒤의 셋을 이루기 위하여 앞의 셋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예언이다.

영원한 의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났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은 사망이 전제된 사건이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산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 곧 사망을 처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었다.

롬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아야 할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죄인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 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즉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예식인데, 물에 잠겨 있는 동안은 호흡을 할 수 없다.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침례를 해야 한다. 세례의 형식은 그 의미를 바르게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세례라고 하면서 예식을 물에 잠기는 것을 행한다면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잘못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례라고 하면서 물을 머리에 조금 떨어뜨리는 것을 한다면 침례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며, 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온 우주 앞에 선언하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죽으실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므로 영원한 의 곧 영생의 생명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알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로 우주 앞에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되

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침례 예식은 이런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2) 침례의 기원

침례는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 기원이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 기원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런 저런 학설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결례(潔禮)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예수 당시 은둔 종파였던 에세네파의 침례예식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에세네파는 사회와 등지고 은둔하여 수도원적 집단생활을 한 종파인데 그들은 매일 서로 침례를 주는 것을 일과로 했다고 한다. 그들은 광야 한적한 곳에 그들의 처소를 마련하고 사회와 격리되어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큰 종교 집단이었으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처음 침례를 준 사람이 침례요한이다. 그는 빈들에서 살았다(눅1:80).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이 대중 앞에 나타날 때까지 에세네파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가 에세네파에 있으면서 침례예식에 대하여 배웠을 것이고 그것이 침례의 유래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침례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시행되었다고 가르친다.

요1:33,34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

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마21:24-2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주는 것은 자기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공언한다. 그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은 성령이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물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확실하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셨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왔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침례의 기원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몇 가지 예표로 이미 예언된 것이다.

첫째는 창조하실 때이다.

창1:1,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기록이다. 이 사실을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베드로는 설명한다.

벧후3: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땅이 물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이다. 것처럼 침례는 물에서 나올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다.

벧전3:20,21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은 노아 홍수를 침례의 예표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예표이다.

고전10:1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

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애굽에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될 때에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과 영원히 결별한 것이 침례의 예표이다. 이것은 죄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침례의 예표이다.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예표하고, 또 하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예표하고 마지막 하나는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예표한다. 침례는 신령한 뜻으로 이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거듭난 사람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죄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침례 예식의 신령한 의미인 것이다.

3). 부활과 중생

부활과 중생의 관계는 이미 앞 장들에서 설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요약적으로 말하려고 한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실현된다. 그때 실제적으로 생명의 활을 할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뿐이다. 지금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고 말씀하신 것이다.

중생은 곧 부활의 생명의 씨를 소유한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중생의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씨를 가지는 것이다. 이 생명의 씨가 없으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영광의 부활을 하지 못한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활의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씨이다.

눅8: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일3: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의 몸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실지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요일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죽은 자라는 말이다. 죽은 자는 장사(葬事)해야 한다. 최후의 장례(葬禮)는 화장(火葬)이다. 거기에는 매장이나 수장은 없다. 노아시대에는 그 실제적 생명을 거절한 육체뿐인(창6:3 난하 주) 사람들을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장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최후의 장례식은 화장이다. 그곳이 바로 불 못이며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이다. 하나님의 씨,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화장되어 창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된다.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경은 침례를 부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골2:12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침례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한 것이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의 부활에 참

여하여 영원한 의 곧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4). 중생한 사람의 삶

중생한 사람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중생한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주장할 수 없다. 죄가 주장한다는 것은 사망이 주장한다는 말과 똑 같은 말이다. 사망이 주장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나타낼 뿐이다(엡4:22).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다(벧전1:18).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런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계속 그 행실이 나타난다면 그는 아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생각과 삶에 분명한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1) 예수의 모본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다. 죄인들이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다. 즉 사망이며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는 육체뿐인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삶이 없다. 행위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서 썩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행위가 있다면 죽은 행실인데, 그것은 썩는 현상을 표현한 말일 뿐이다.

엡4:22-24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벧전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시78:39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본이 되신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사신 모습은 죄인들이 그를 본받아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진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모본이신데, 즉 거듭난 사람들의 모본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다. 이것도 구원을

언을 사라들이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한다. 우리의 상태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태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중생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모든 날 동안 살아간 그 길은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인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아직도 우리 몸을 죄 곧 사망이 주장했는데 이제는 의 곧 생명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롬6:10-16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생면 곧 생명의 성령이 주장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더 이상 죄에 종으로 줄 수 없다. 그는 생명의 종이다. 예수 생명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나타냈던 바로 그런 삶을 나타내게 된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렇다. 생각이 그렇고 언어가 그렇고 정서가 그렇고 지정의가 나타내는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께서 사신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적어도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생각의 경향

거듭난 사람은 생각의 경향이 달라진다. 그가 진정으로 중생한 여부는 그의 생각의 경향이 어떤가 하는 것으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 거듭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자기 일상의 생각의 경향이 성경적인지 세속적인지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롬8: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과 영에 속한 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경

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를 가려서 그가 육신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영에 있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롬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육신에 있는 자이며,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면 그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이다. 이 말은 육신을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영적으로 일관된다는 말씀이다. 육신에 있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없다.

유19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의 사고방식은 생명적이며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충일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사로잡아 예수께 굴복시키기를 즐겨하는 것이다(고후10:5). 그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의 지침이 되고 기록된 말씀이 그를 통하여 육신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요1:14).

(3) 언어생활

거듭난 사람의 말은 거듭난 사실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말은 그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12:34,35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장 예리한 도구가 말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주님께 날마다 그의 혀를 드러야 한다.

시141:3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39: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잠12:18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눅4:22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엡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권고의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언어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심사숙고한 언어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야 할 것을 가르치신다. 거듭난 사람의 혀는 거듭난 혀야 한다. 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행2:4).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거듭난 혀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 정서의 경향

사람의 성질이라는 것은 곧 정서의 경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질이라는 것은 정서가 나타는 모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서가 불안하거나 자기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성을 잘 낸다. 그리스도인은 성내지 않도록 자기 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얼굴이 감사와 친절의 표정으로 밝게 빛나게 해야 한다. 그 정서의 형상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는 사람이다.

살전5:6-18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정서가 되어야 한다.

고후4: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서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통하여 빛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이다. 주께서 마음에 계시고 성령이 생명의 능력으로 주장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전8:1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움의 손이 필요할 때 도우기를 지체하지 않으며 사랑을 하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도록 애써야 한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자주 상처를 준다. 그의 진심은 이해하지만

나의 일방적인 사랑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헤아리는 성령의 지혜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대하시며, 또 그들을 고소하는 자들을 대하신 주님의 태도는 바로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면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록한 말씀이 그를 통하여 육신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들이 생명이 되었으며,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을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시므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본이 되셨다.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2:12-16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7. 교회와 교인

1). 교회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이다. 이 말은 “...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뜻이다. 불러낸 것은 불러낸 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헬라에서 지방과 나라의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회의장으로 불러 모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민회라고 번역하였다(행19:39). 이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교회라고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을 하고 난 직후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다.

마16:16-1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

러내었는데 그 부르심에 대답하여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로 교회는 성립된다. 이런 교회를 예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의 뜻을 이행하는 기관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실을 찾으면 맨 처음으로 만물의 창조를 들 수 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 것도 없는데서 모든 것을 불러낸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다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시119:91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시50:1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불러내셨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수행하는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시편은 이런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죄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수행하도록 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직접적 의미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고전1:2,3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엡2:20-22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벧전2:4,5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자행자지(自行自止)하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인들은 분명한 성경적 교회관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적 교회관에 굳게 서서 신

양생활을 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재림성도들이 성경적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교회가 개인의 뜻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숙지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뜻을 수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답게 교회생활을 성실히 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인가.

2) 교회의 조직 형태

교회는 조직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제멋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조직에 익숙해야 한다. 성경에는 교회의 조직에 대하여 여러 측면의 설명이 있다. 그중에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준 것이 몸의 구성으로 비유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 몸으로 비유됨

성경은 교회의 조직을 몸의 조직으로 비교하였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이 위계(位階)가 있다. 그러나 몸의 조직에서 위계를 찾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 아닐까? 몸의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더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밖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전부 속에 감추어져 보호되고 있다. 참으로 기이한 구조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몸의 구조라고 성경은 너무나 확실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일원이 된 교인들은 이 이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적절하게 적고 있다.

고전12:12-27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2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다. 일단 교회로 구성되면 교회 안에서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자시니 지체라는 사실을 명백하고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체는 독립하면 생명을 잃는다. 각 지체가 저마다 독립하겠다고 하면 몸은 해체되고 교회는 없어지게 된다. 지체들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다 제몫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들이 각각 제 위치에서 제 몫을 제대로 감당할 때 몸은 건강하고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하여서는 각 지체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은 자기가 몸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생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관을 바르게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다. 이런 사실을 위에 적은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관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우일까?

몸을 구성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다. 다시 표현하면 두뇌이다. 교회의 두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온 몸이 머리에 연락되어 일일이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교회의 각 지체로서의 교인들은 일일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한다. 두뇌의 지시가 올바르게 전달되어 수행되지 않으면 장애, 또는 불구라고 한다. 지체로서 나 하나가 잘못됨으로 온 몸을 불구가 되게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것인가!

골2: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들도 다만 몸의 지체일 뿐이지, 위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눈이 귀보다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며, 입이 손보다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다. 그 기능이 다른 것이다. 어떤 것은 좀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체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으스스댄다든지 교만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으스스대던 지체도 상하게 될 뿐이며, 자기소임을 감

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은 몸 전체가 건강을 잃고 함께 고통하며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고전12:28-30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런 직분들은 교회가 유기체로서 건강하게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배려하여 맡긴 직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자랑할 수 없다. 직분은 다르지만 지위는 다 평등한 것이다. 이미 앞에 적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을 읽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전12:21). 로마서에도 이 사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숙고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롬12:3-11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여 어떤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몸인 교회는 병이 들게 된다. 지체가 분열하고 몸이 해체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직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두신 것인데 그것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 커녕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지체를 수술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지체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엡4:11-16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

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한 것은 얼마나 적절하고 합당한 표현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 몸의 지체라는 인식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에서 자기에게 준 지체의 직무를 가장 건강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이며 우리 몸의 지체 기리 서로 위하고 돌보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을 연합할 것이다.

(2) 군대로서 비유됨

교회가 몸으로 비유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비유되어 있다. 군대는 조직이 있고 지휘 계통이 있다. 지휘 계통을 생각할 때 직위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교회가 지휘 계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위가 되지 않고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으로 지휘 계통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운영된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6:4,10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10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치를 벌인 위엄 있는 군대에 비유한 말씀이다. 여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다. 에베소 5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엡5:31,32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남편이며, 교회는 그의 아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라는 사상은 신약성경에 일관된 사상이다.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 아가서의 기치를 벌인 군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잘못 된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였다. 그들에게는 천 부장으로부터 십 부장에 이르기까지 능력을 따라 지위를 부여하였다(출18장). 군대는 명령 계통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지위가 부여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교회의 그런 지위적 개념이 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섬기는 지위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

님은 가르치셨다. 소위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섬겨야 한다.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전적으로 섬기신 것처럼 섬겨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신 것이다. 교회에서 혹시 지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섬기는 것이며 결국은 지체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마20:25-28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13:12-17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군대는 국가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자기 일에

매여서도 안된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몸의 지체가 독립적일 수 없는 것처럼 군대야 말로 개인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 몸으로 비유했든지 군대로 비유했든지 교인들은 교회에 대하여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일반이다.

딤후2:3,4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3) 집

교회는 또한 집으로 비유되었다. 집으로 비유했을 때 집과 관련한 여러 사실들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집에는 가족이 있다. 교회는 한 집에 사는 가족들로 구성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형제와 자매가 있는 것이다.

딤펴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시면서 가족이 사랑으로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복음이 바로 가족의 사랑을 바탕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해석하는 것을 신학자들에게 맡긴 것이기보다는 가족을 통하여 해석되어 전파되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같고,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같고, 남편은 예수님 같고, 아내는 충성스러운 교회 같으며, 자녀들은 교회의 각 구성원들의 사랑하는 상태와 같아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사랑의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과 같아 보이며 이 가정에는 원하는 누구든지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교인된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가정마다 복음의 바른 해석장(解釋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에서는 식구들이 생활을 연습하고 배운다. 책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부모의 생활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을 자녀들은 배운다. 바른 윤리와 도덕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것을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말과 글로 배우는 것보다 실생활의 본을 통하여 모방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을 바르게 나타낼 때 올 바른 교회로 생활할 수 있고 성장하게 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들을 교회생활에서

배워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그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그런 가르침에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관을 심어주는 것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바르게 훈련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교인이 되게 한다면 몸의 지체로서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집의 가족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마땅히 감당하지 못하는 불구 지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산 기관이다(행20:28). 그러므로 자기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은 자기 가정의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이 세상에 활동하는 어떤 활동이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관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침례로 서약할 때에 바로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교회는 이념 단체이다. 세상에 있는 이념 단체들도 그 단체에 가입하려고 할 때에 그 이념에 충실하겠다고 서약을 받는다. 그렇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교회에 입교할 때에 그 이념에 충성하겠다고 서약하지 않고 되겠는가? 그 서약이 바로 침례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모든 교인들은 다 이런 바른 생각을 길러야 한다. 더구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각오하고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대답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주님께 순간마다 굴복하자.

8. 지도자의 자리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의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망치게 된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 교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바르게 봉사하는 자질을 개발하는 것은 할만한 일이다. 달란트를 하나도 받지 않은 교인은 없다.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날에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그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약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불가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도 선생이 되지 않겠다면 누가 가르치며 지도하겠는가.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야 할 날이 이를 때에 준비된 상태로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다면 복된 것이다.

1) 지도자는 사상이 올바라야 한다.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단체의 이념과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이념과 정신과 일치하는 사상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지 못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됨으로 진리를 벗어나간 것이다. 대신에 오류를 채워 넣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의 허상이다. 한번 잘못 입력된 사상을 바로잡는 것은 인공위성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대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잘못 걸어간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단체로서 교회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면서 벗어나서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물론 교인들 개개인도 순간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아서 말씀을 따라 궤도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창13:10,11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제사장인 신앙 지도자로서 올바른 사상을 가지지 못했다. 그는 인간의 안목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의 비극을 낳았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올바른 사상을 가졌더라면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세속적 생각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다(창15:4). 약속하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는 일에 시험을 당했다. 그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당시 세상에서 하던 방법을 좇아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생각했다(창16장). 첩에게 아들을 낳아 본처의 자식으로 입적하는 것이 당시 세상에 용납된 풍속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었는가. 오늘까지도 그때의 비극이 이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떤 사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 다른 교단들이 하는 방법, 성령을 통하여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교단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지?

요즘은 마치 창세기 6장 시대처럼 세속적인 문화가 하나님 문화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사상도, 음악도, 기타 생활의 모든 도구들도 세상이 교회를 압도하고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발달시킨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바른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못처럼 좋아 보이는 것을 좇아 소돔으로 가지 말아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방의 풍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외롭다. 그들은 홀로 처해야 하는 백성들이며 열방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민23:9). 그런데 교회가 열방 중에 하나 같이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 세상의 사상이 교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방 방법을 끌어들이 주님의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럴 듯 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철저하게 성경에 있고, 원칙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처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벼이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미혹되었다. 현실적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방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사무엘처럼 철저하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일일이 말씀의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 사무엘을 지도자로 언급하셨다.

렘15: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치라.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아뢰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뜻이 들어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비록 그런 지도자가 말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미 회개를 말할 때 이야기 했듯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상을 굳게 해야 할 것이다.

2) 지도자는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목사가 가장 신임을 못 받는 이유를 묻은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이 언행불일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선택된 지도자는 언행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말은 들어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마23:1-3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

회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 하며.

이반 신자들의 눈에 지도자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언행 불일치를 볼 때에 지도자로 존경하기 어렵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행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 당신을 신뢰하라고 하셨다(요14:11).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 받는 것 같이 자기를 본 받는 자 되라고 하였다(고전11:1).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이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선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그런 그들이 몸을 세우기보다는 몸을 허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사람은 약해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실생활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잘못은 솔직히 시인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올바른 언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 베드로도 경우에 따라 외식한 사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

갈2:11-14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좃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도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

행15: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람이 약해서 이럴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 되 마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시103:10).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는 이유로 약한 상태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빌2:13). 그리고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한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하였다. 훗날 그는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고백 하였으며 자기를 돕도록 그를 데려오라고 특별 부탁을 하고 있다(딤후4:11). 그리고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고백한다 (몬24).

사울과 다윗의 죄질을 따져보면 인간의 판단으로는 다윗의 죄질이 훨씬 악해 보인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삼상15:17-30, 삼하11:1-2:13).

우리가 허물을 저지른 것보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거운 허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3) 지도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사리의 분별력은 지도자에게 중요한 자질이다. 분별력이 없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 교회를 지도함에는 날카로운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교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서는 더욱 중요하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의 지도를 받는 신도들은 다 그릇 인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대적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중세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었으며, 그 후에 바벨론의 딸들이 된 교회들도 그렇

게 되었다. 역사의 종말에 남은 자손으로 자처하는 우리 교회도 요즘은 열방과 같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흔들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참된 증인의 바른 증언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증언 자체에 대하여 흔들고 있으면 예언의 신인이신 성령을 통하여 주신 기별과 그로 인하여 바르게 깨달은바 말씀의 신학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게 말씀 앞에 앉아 고요히 말씀을 들으며 바른 분별과 판단으로 진리의 정로를 걸으면서 지도해야 한다.

딤후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30:21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특별히 장로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줄 아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장로들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실습을 해야 할 것이다.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이 바른 이해인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신도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딤펢전3: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

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딤후2:24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판단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다른 일들도 그와 같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사도 요한이 살아 있던 시대에는 영지주위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일에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그 시대에 바르게 분별할 표준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골로새교회에 그렇게 하였다.

이런 진리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계획하고 수행하는 교회의 일들도 역시 분별력이 필요하다. 직원회에서 문제를 다룰 때나 교회당 건축을 할 때나 전도회를 할 때, 기타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할 때 분별력과 판단력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또 교인 상호간에 엮힌 문제를 들었을 때도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말을 듣는 대로 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을 때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그의 입장에서서는 옳은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또 정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누구의 말에 쉽게 동의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잠18:17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사울 왕은 전쟁에 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많은 군사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였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나단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삼상14:24-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5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26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27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28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29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31 그 날에 백성이 므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

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33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 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 오라하고 34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런 지도자는 지도 받는 사람들을 피곤하고 곤고하게 한다. 교회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온 교회를 피곤하고 곤란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태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데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다음 단계의 판단이 더 나쁜 것이다. 사람은 한번쯤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사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의 전형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는 이렇게 잘못 분별하고 판단하여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왕들이 많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맑고 밝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한다.

4) 지도자는 인내와 포용성이 필요하다.

참을성 없는 지도자는 일을 그르치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다. 포용성이 없는 지도자는 원수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대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기여한다.

관용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특히 말세에 나타내어야 할 성도들의 특성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인내와 관용을 생각해보라.

빌4: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벧후3: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교인들 하나하나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 기대하는 완벽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지도자 자신도 실수투성이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회개하면서 교인들을 지도해야 한다.

히5:1-3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3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사가 장로가 교인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고쳐야 하지만 지도자는 고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무의식중에라도 작용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어떤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할까마는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봉사하는 고귀한 직분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이 친히 세운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자이다. 그러나 그도 연약에 싸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자기가 연약에 싸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대체로 폭군이 된다. 강압과 포학으로 자기의 연약하고 무식한 것을 감추려는 성질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개선할 여지가 없게 된다. 스스로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도 연약하여 자기가 실수하는 것처럼 그들도 실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포용하

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귀한 존재이다. 가족 중에 귀하지 않은 가족이 누가 있는가? 지체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 것을 잘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포용하셨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포용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도 모른다. 함께 지내는 동안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요13:1).

성질 급한 베드로와 욕심 많은 야고보 요한 형제, 열심당원이 시몬 등등, 그들을 다 큰 가슴으로 포용하셨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그런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포용이 그들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꾼들이 되게 한 것이다. 지도자가 되어 그렇게 애를 먹이는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포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지도자가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지도자의 이런 면들을 일일이 말하려면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각설하고 지도자는 참된 중생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는 태초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교인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 달음질해야 할 것이다.

9. 원칙과 포용

포용은 원칙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다. 포용하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진짜 포용이다. 관용과 포용을 원칙을 버리고라도 품어 안으라는 뜻으로 오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사랑이 많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가르친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허물을 그대로 용납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 그것이 관용이요 포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버리지 않으셨다. 사랑이 바른 원칙 위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양산하게 된다. 오히려 불신을 낳고 잘서를 파괴하게 된다. 사태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불륜은 사랑이 아니다. 말 그대로 불륜(不倫)이다. 이류가 가진 윤리와 도덕은 사랑의 보편적 원리이다. 이 원리를 벗어난 감정과 욕정의 발산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죄악인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가면을 잘 쓴다.

1) 원칙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원칙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것은

태초에 세운 두 원칙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십계명을 이분 한 것이다. 그것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미 기록된 것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칙은 창조 때에 이미 세우신 원칙인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자이며 사망이다. 사망인 채로 있으면 장례를 치러야 한다. 마지막 장례가 화장이라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생명과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기 위하여 옛세 동안 만물 지으시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친히 안식하시므로 안식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도록 하신 것이다.

옛세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게 하셨다.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은 그 의미가 아주 다르다.

“좋았더라”고 번역된 말은 구역(舊譯)에는 “선한지라”고 번역되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טוב)”인데 “좋다, 선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마치 영어의 good과 같

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로 는 좋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이 뉘앙스가 다르다. 좋은 것은 정서적 감각적인 말이고 선한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말이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었다. 물론 정서적 감각적으로도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물론 그 단어도 양면이 있는 헬라어이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 선하다고 번역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물질이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선하도록 하신 것이다.

딤편4: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틸 것이 없나니.

우리가 물질은 윤리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사용하는 길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옛세 동안에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시고 안식일로 제정하시면서 이 날은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신앙적인 존재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렇게 된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없

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거룩하여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창세기 2장 1절로 3에서 이 사실을 계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창세기 2장 21절로 25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이다. 여자는 아담이 만난 최초의 사람 이웃이다. 그 이웃은 자기 몸에서 나온 존재이며 생명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화하여 있지만 한 때는 아담 안에서 한 몸이었다.

교회의 일은 첫째로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거룩하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인 교우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다루듯이 이웃들을 다루는지, 이 두 원칙은 성경의 대강령(大綱領)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깊이 새기고 교호 일에 임한다면 교회는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 아닌 방종을 실천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도 안된다. 거룩함과 사랑의 길은 좁은 길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주 좁은 문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안목으로 넓은 분이 아니다. 그가 우주보다 크시지만 또한 죄인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바늘귀 같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좁은 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너그러워서 우리가 잘못해도 그 대로 용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전혀 틀린 생각이다.

필립 안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는 동성연애자들의 시위 이야기가 나온다. 1987년 10월에 그들이 30만 명이나 워싱턴 디시에 모여서 동성애자 행진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많은 보수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서 그들을 성토했고 있었다. 그 피켓에는 지옥 불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호모는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합해 외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외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변태자들을 위해 지옥 불 아랫목을 남겨놓았다고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하기도하였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 행렬 중에는 MCC(Metropolitan Community Church) 교회 교인들이 1000여명이나 참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와 심판을 퍼붓는 시위 반대 소위 정통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게이도 사랑한다고 외쳐대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미를 자기들

을 욕하는 사람들에 크게 불러주었다. 필립 안시는 그의 친구 멜이라는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 멜은 목사 안수 받기를 원하는 목회자라는 것이다. 멜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공개한 다음 얼마나 많은 냉대와 찌푸린 얼굴을 대면해야 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멜은 너그러웠다는 인상으로 적고 있다.

안시가 이 글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나로서는 상당히 아리송하다.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교회도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MCC 교단은 동성애자들을 용납하고 있으니 다른 교단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는 주장을 은근히 하는지? 그는 멜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성애자들의 다수가 보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일 수 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 틀림없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들이 동성애를 그만두고 맑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열망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들이 죄를 계속 지으면 살아도 괜찮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영원히 죽을죄에서 속히 나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역시 똑 같은 사랑이 베풀어졌다.

그들이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속히 동성애를 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이야기를 길게 쓴 것은 원칙과 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은 좁은 길이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넓은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좁고 험한 길을 제시하셨다. 적어도 예수께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 자기의 최악적 욕망을 버려야 하는 길이요 문이다. 자기의 모든 최악적이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습관과 성질과 사상을 버려야 하는 길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된 성질과 행습을 버린다고 해도 영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영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며 그 문은 좁은 문이다. 아무런 사상이나 아무런 종교를 주장하고 믿어도 다 용납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마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이 원칙이다. 좁은 문을 들어선 후에 하나님은 무한히 넓으신 것을 알게 된다. 그 넓은 것은 좁은 문을 마련해 주신 사랑으로 드러났다. 하나님이 넓으시기 때문에 좁은 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런 넓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넓은 사랑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글 사랑은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사랑이다. 죄인들이 계속 그 가운데서 살게 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 그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마침내 심판이 된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의미를 외곡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플 것이며 고통스러울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좁은 문의 원칙을 버리면서 너그러운 것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너그워야 하고 그 너그름으로 인하여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결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용납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너그러운 용서를 선포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이다. 너그름은 그 여자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좁은 길, 이 죄의 세상에서는 정말로 좁은 길로 가도록 인도한 것이다.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넓고 좁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3) 포용

포용과 좁다는 것은 양립하기 힘 드는 사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실이 양립하고 있다. 그것이 십자가로 제시된 것이다. 십자가는 지극히 좁은 길 좁은 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용납하고 포용하는 지극히 광대한 문을 제시한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이 두 원칙을 잘 깨달아야 하고 잘 기억해야 한다.

(1)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적 포용의 기호이다. 죄를 지은 이 지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포용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주에 선포하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시고 죄지은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용납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십자가는 광대하다.

그런데 또한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이율배반적인 사상이 십자가에 있다. 넓은 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요, 좁은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따라 갈

수 없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라갈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마10:37-39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16:23-25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책의 처음에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라는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나”라는 독처하는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아니라 자아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하는 각오와 십자가 외에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시작된다.

고전2: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삶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다. 자아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갈5:24-26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격동시키거나 투기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고방식은 주의 일을 하는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나 생활에 틈을 탈 수 없는 것이다.

갈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직도 세상의 이론이 좋아 보이고 세상적 방법을 하나님의 일에 적용하는 것이 부흥의 길인 것처럼 보인다면 회개해야 한다. 베드로의 사고방식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일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 세상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결코 메시아인 예수께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발상이야말로 세상적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마16:22,23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 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때의 베드로와 같은 경향이 없는지?

예수를 위하여 사단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예수를 바라보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시야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원칙도 살고 포용도 되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이 다 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용서와 포용

앞 장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는 용서의 선언이다. 그러나 회개가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회개와 용서의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회개보다 먼저 있다.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필요도 없이 그 얼굴을 숨기시면 아담 부부는 영원한 죽음으로 그의 존재와 생명을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물음이었다. 아담은 대답했다. 나는 아담의 이 대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만일 아담이 대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지구는 생명 없는 흑성으로 흑암에 떨어졌을 것

이다. 사단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계속 대항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맙게도 아담이 자기 위치를 드러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을 불러내시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아담이 지금 있는 그 위치의 성질을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안타까운 질문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숨었기 때문에 창조주 당신이 친히 아담의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담아,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리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다. 과연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경험을 하시게 된 것이다. 아담이 숨은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용서와 포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희생은 허물진 사람이나 잘못 된 일을 바로잡는 기회와 능력이 되어야 한다. 희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허물과 그 잘못된 상태를 계속한다면 희생은 의미가 없어진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희생의 결과가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내다보셨다.

사53:10,11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

으로 여호와와 뜻이 성취하리로다 11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희생은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확신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의 확신 이전에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확신 때문이라고 깨닫는 것은 잘못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런 확신은 주님께서 희생하실 때 가지신 확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그 확신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진정으로 알곡이 되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체득하게 되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은 다 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결실을 맺을 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다. 회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출발이다. 그리고 거듭남의 경험에 이르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도 주께서 사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생명의 성령이시다.

요일4: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사는 생활환경은 모두 주의 어떠한 심과 같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이루려는 가룩한 노력으로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엡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포용은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른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독생자의 십자가가 있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할 때도 십자가는 희생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금전이나, 시간이나, 감정의 희생이 있다. 이런 일 없이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겠는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다루기가 가장 어렵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지도자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갈6:2)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때때로 지도자가 사람을 잘못을 잘못 된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고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놓을 수 있다.

지도자는 포용하고 또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도 연약에 싸인 것을 솔직하고 깊이 인정하여 자기 회개를 하는 간절한 마음과 태도로 허물진 사람들을 지도 포용하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태도로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주님 앞에서 항상 생각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벧후3:11,12)하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4)는 주님의 권고를 이루는 자세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이어나아가야 할 것이다.

10. 교회 행정

1) 연합 행정의 제일 원리

행정의 요체는 피행정자들이 평안하고 염려 없이 살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 행정도 역시 그렇다 교인들이 기쁘고 즐겁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행정이다.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즐겁고 은혜로우며, 교회가 하는 여러 행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미 교인된 사람들을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령사업이 흥왕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교인들이 일치 연합해야 한다. 교회 행정의 제일 원리는 연합이다. 온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일이다.

요17:20-22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오, 모든 교이들은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머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합하지 않는 것은 온 몸의 지체들이 각각 독립체인양 제멋대로 행동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가 된다. 몸은 해체(解體)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죽게 되는 것이다.

교회 사업을 의논하다보면 다른 의견들이 속출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들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의견들은 다 교회를 위하여 제안된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의견을 다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채택된 의견을 실행하는데 온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안건이 채택되어도 그것은 교회가 채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은 그 사람도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한국 교인들은 회의 하는 문화가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인 교회에서는 직원회 중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감정까지 상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위하여 제출한 의견일 뿐, 반대하는 사람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하는 회의에서 제출한 의견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반대로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한 것이요, 채택되어도 교회를 위한 것이지

의견을 제출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교회 곧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의견이 다른 교인들끼리 의가 상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런 일로 의가 상하여 채택된 교회 일에 협력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반대한 사람과 소원해진다면 그는 몸의 지체가 아니라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막5:1-15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

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렸던 자 곧 군대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을 잘 보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주께서 군대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았다.

사람은 다 자기 몸을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귀신은 군대이다. 수가 많다는 뜻이다. 즉 그 사람의 한 몸을 여러 귀신이 주장하는 것이다. 귀신이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몸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쫓아내시고 바다에 다장사지냈다. 귀신은 돼지 정신이다. 돼지는 깨끗한 것을 유지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벧후2:22). 예수

가 없는 삶은 깨끗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삶이다. 예수를 만나야 깨끗해지고 옷을 입게 된다.

이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연합되어 있으면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몸의 기능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신이 들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예수의 몸인 교회를 상하게 하는 일을 귀신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 귀신은 군대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인 교인들이 각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연합하지 못하면 교인 개인마다가 다 귀신 노릇을 하게 된다. 그들은 돌로 몸이 교회를 상하게 한다.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벧전2:4,5).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몸인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돌이 된 교인들이 서로 몸을 상하게 하는 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갈5:15). 그것은 완전히 군대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지도자나 평신도나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연락하여 온전히 통일된 연합체를 이루어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2) 생각할 사항들

(1) 지도자는 공평해야 한다.

사람은 다 기호와 취미가 다르고 정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유유상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몸된 교회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그 정신에 입각하여 해야 한다.

어떤 교회를 담임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수석장로님이 하던 말이 생생하다.

“목사님, 참 계시는 동안 모든 교이들에게 공평하셨습니다. 여러 목사님을 받들었는데, 그렇게 두루 공평하게 대하시는 목사님이 쉽지 않았습니까.”

목사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교인이 있다.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것이 교회의 일을 하는데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2) 직분들의 마음

처녀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총각은 남편의 마음을 모른다. 그들이 아내와 남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같다. 것처럼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목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어떤 날 한 집사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제대로 교회 일을 하고 교인들을 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좋은 충고였다. 그러나 그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신자들은 목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집사님이 나에게 중요한 교인인 것처럼, 집사님이 말하는 그들도 똑 같이 중요한 교인입니다. 집사님을 마음을 다해 대하여야 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음을 다해 대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에게 와서 집사님에 대하여 지금 집사님이 말 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집사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때도 나는 지금 집사님에 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교우 상호간의 관계와 목사와 각 교우간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집사님은 이런 목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들도 집사들도 다 그 직분에 합당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직분을 직분답게 진정으로 받아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교회에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바로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일하도록 선출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

러나 본인도 그달란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한 대로 그 직분을 맡으면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재능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지 못해도 그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재(適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일을 맡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긴 줄 확신하고 그 적재(適材)가 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승복하는 자세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승복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경우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승복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에 일단 승복하는 것은 또 하나의 승리이다. 결의된 사항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반란인데, 지체가 독립체가 되려는 시도와 다를 것이 없다.

자기 주장이 천번 만번 옳았다 해도 일단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으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여 지체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그래서 열심히 함께 자기가 반대했던 그 결정된 일에 헌신하여 일하다가 그

일이 잘 안되면 다시 의논하고 일이 되도록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회의 규정에 매여 일이 안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한 번 결의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의논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님은 교회가 결정한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을 통하여 그 일을 다시 의논하라는 기별을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주장하여 너무나 확실히 잘못된 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단 시행해보다가 잘못 된 것이 보이면 결단하고 다시 의논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간과 재정이 손해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하여 시간과 재정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겠는가.

(4) 기도하고 다시 의논함

미국인 교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지는 안전에 대하여 일단 중지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예를 볼 수 있었다. 좋은 본이 아닌가? 우리도 직원회나 기타 회의를 하는 중에 과열 격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열 격론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격

론을 벌인 직원들, 또는 성도들의 개인 심정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회의에 있었던 일이 일상생활에서 감정적 대처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리이다.

(5) 발설하지 않는 입